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남원 노봉마을, 농식품부장관상

문화복지분야 '혼불아리랑' 선보여 전국대회 출전권 획득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의 자율·창의력·협동심을 고취하고, 마을의 소득·문화·경관·환경 등 개선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노봉마을은 8월 28일 대전시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이번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분야 혼불아리랑(물박놀이)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노봉마을은 지난 7월 4일 도 생생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9개 시도 최우수상 수상 마을간 지역에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5개 마을 예계만 주어지는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으며, 혼불아리랑을 주제로 문화복지분야에서 수상해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남원시가 지속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적인 농촌활력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봉마을 주민들이 2013년부터 복사꽃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 향토산업마을, 아름다운 농촌기르기, 소설 혼을 주제로 한 효원이 시집가는 날 농촌축제 등 다양한 마을 사업으로 공동체가 정착된 마을이다.

특히, 그동안 할머니들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회관에 모여 혼불아리랑 노래를 연습하고, 소풍축제, 농민회관

준공 식전행사, 동편제 국악거리축제, 농촌체험관광 공연 등 야외무대에 진출하며 많은 박수를 받아 왔다.

한편 노봉마을 김용구 위원장과 한남수 이장은 주민들이 행복해 하는 일인 만큼 내년에 다시 한 번 출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할머니들의 혼불아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기적 공연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학정마을, 마을경연 빛 받다

'소득·체험분야' 농림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 부상·'농식품부 본선' 출전

임실군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분야'에 출전한 임실군 삼계면 학정마을(대표 신승철)이 지난 7월 4일 전라북도에서 치러진 예선에서 1등을 거머쥔 데 이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정마을은 대전에서 전국대회로 치러진 본선에서 전국에서 엄선하여 추려진 경쟁한 마을들을 제치고 장관상을 차지함으로써, 임실군 마을만들기의 성과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학정마을은, 1차로 '전라북도 예선전'에서 총 18개 마을이 참가하여 경합을 통해 당당히 1등을 수상하여, 도 대표 자격으로 '농식품부 본선'에 출전티켓을 얻었다. 각 시·도에서 대표마을 전국 36개 마을이, 다시 서면 및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 20개 마을로 추려져 28



임실군 삼계면 학정마을이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일 본선전을 치렀다. 이 날 콘테스트에서 학정마을은 첫 발표순서로 나와, 제한시간 20분동안 '마을사업을 통해 이뤄낸 지금까지의 성과와 마을이 꿈꾸는 미래'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및 촌극 형식으로 종합구성한 퍼포먼스를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맘껏 선보였다.

특히, 학정마을 신승철대표가 엿장수로 변신해 마을의 대표상품인 '찰엿'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가는 대목이 가장 백미(白眉)였다.

학정마을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상장과 수상마을현판 및 마을기 수치를 수여받고, 부상으로 시상금 1천만원과 관객들에게 맘껏 선보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매아리

임실군, 감염병 예방 및 방역소독

임실군(군수 심민)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잦은비가 내리면서 날벌레와 모기 등 해충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초미립자 약제살포기(UV)를 이용하여 읍·면 소재지를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 방역소독에는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연막소독 방식이 아닌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 대기에 분무하는 친환경 방역방식인 연무소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군은 모기성충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 외에도 모기유충 서식지에 유충구제를 실시했다.

또한 체육시설, 관광지, 공원에 친환경 LED포충기 17대를 설치하여 10월까지 가로등 점등과 소등시간에 맞춰 포충기를 가동해 모기 등 해충을 박멸에 앞장 서고 있다.

이종백 의료지원과장은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강화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군민 건강증진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소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지원팀 감염병관리팀(☎ 063-640-3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성황

'2019 귀농귀촌 어울림 한마당 in 순창' 행사가 29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주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민성)가 주관해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화합을 이루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관내 호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식전행사도 행사장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귀농귀촌인 정착이야기와 마을화합이라는 주제로 특강까지 준비해 내실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행사장을 방문해 귀농인과 군민들의 화합을 축하했다.

황 군수는 축사에서 "점차 귀농을 희망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군에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면서 "현직인과 화합을 이룰 마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힘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점심식사 이후 이어진 행사에는 전문 가수 초청과 청백전 레크레이션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수를 앞둔 농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과 상견례

86명 대상 임용 전 교육 실시

남원시는 29일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임용예정자 86명을 대상으로 상견례를 가진 후 임용 전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마음열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매너와 예절 ▲이환주 시장과 새내기공무원과의 열린 대화 ▲주요 시책사업설명 등 남원시정에 대한 기본이해와 주요시책을 설명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함으로써 공직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이번 교육 후에도 시

공직자로서 남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주요 문화유적지 탐방 교육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예비공무원은 "임용전이지만 남원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이 많이 기대되고 설렌다"고 전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새내기 공무원들과의 상견례에서 "선택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데 '공직'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열정을 갖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군민 안전보험 가입

내달 1일부터 내년 8월까지 14개 항목 보장

순창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 보호에 나선다. 총 14개 보장내용으로 각 보장항목마다 보장금액이 최대 1200만원까지 이른다.

가입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입 인구나 태어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이 전 군민대상으로 군민 생명 및 신체와 직결된 보험가입은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보험제도의 보장내용이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총 14곳 중 7곳이다.

도내 타 지자체 안전보험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각 보장항목별로 보장금액이 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그 중 대다수 지자체가 보장금액이 최대 1천만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하는 순창군 안전보험제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혜택을 군민들에게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보험가입에 있어 보장항목 또한 보험가입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타 지자체 보장내용은 최소 8개 보장항목부터 최대 14개까지로, 이번 순창군이 가입한 보장항목 또한 14개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우려해 스쿨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부상 비용을 지원하는 보장내용도 이번 안전보험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안전보장에도 신경썼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 굿콘텐츠서비스인증 2회 연속 합격

남원시 대표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굿콘텐츠서비스인증 심사에서 최종 합격하며 2회 연속 굿 콘텐츠서비스(Good Content Service) 인증을 받았다.

굿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 제도준수, 고객관리 등을 분야별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선발된

이용자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서비스에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정부의 공식 인증제도(관련근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이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남원시 대표 홈페이지는 HTML5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 및 브라우저에 적합한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